

향/장

ALL ABOUT BEAUTY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할 뷰티 노하우

뷰티로 떠나는 바캉스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이너 뷰티

여름을 위한 베이스

JULY 2020 VOL.621





SINCE 1958

<항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3년간 621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월간 뷰티 매거진입니다.



MAIL
HYANGJANG@MCKOREA.COM



WEB
WWW.APGROUP.COM



COPYRIGHT 2020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02 NEWS- 피부과학의 끝판왕, 아이오 펌	22 SPECIAL 최고의 이너 뷰티 아이템	46 INGREDIENT 해양 심층수
04 NEWS- 설화수의 아름다운 캠페인	32 PRODUCT 설화수	48 HEALTH 그곳의 건강을 위하여
06 NEWS- 한소희가 선택한 여름 향수	34 PRODUCT 헤라	50 REVIEW 여름을 위한 향기 테라피
08 NEWS-TREND 네온 아이 메이크업	36 PRODUCT 설화수	52 PLACE 호젓한 독립서점
10 MAKEUP 휴양지 메이크업	38 MAKEUP PLAY 여름 맞춤형 베이스	54 ESSAY 정현주 작가의 아름다운 에세이
16 PRODUCT 바캉스 머스트 해브 아이템	42 ICON 도시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56 EDITOR'S PICK 7월의 강추템

발행일 2020년 7월 1일 발행 통권 621호 발행인 서경배 편집인 안세홍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인쇄 (주)태신인쇄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제작 문의 이기태 제품 문의 080-023-5454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김희진, 이성진, 안새롬 디자인 www.pentagramgraphic.co

※<항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슬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방문판매용 매거진입니다.

30년 차나무 뿌리의 힘으로
탄력선은 살려주고, 주름선은 잡아준다
라인에이징 코렉터



AMOREPACIFIC



아이오페 랩
문의 02-319-4608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8길 8-6
운영 시간 1층 매일
10:30~21:00, 2~3층
평일 10:30~19:00
(주말 제외)

2020 테일러드 뷰티

나만을 위한 맞춤 뷰티가 실현되는 곳. 아이오페 랩의 테일러드 서비스는 그야말로 신박하다.



치수를 재고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맞추는 것처럼 뷰티 제품도 내 피부 특징에 딱 맞게 만들 수 있다면? 아이오페 랩은 2014년 문을 연 이래 지금까지 6천 명 가까운 여성의 피부 데이터를 축적한 것은 물론, 아이오페 랩에서만 만날 수 있는 피부미래솔루션 프로그램을 통한 유전자 분석 데이터와 연구를 통해 개인의 피부 문제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피부 관리 방법을 제안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아이오페 랩에서 운영하는 랩 테일러드 서비스는 이 방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된다. 꼼꼼한 상담을 거쳐 개인의 피부 고민에 맞춰 만들 수 있는 랩 테일러드 세럼과 3D 프린팅 기술로 만드는 랩 테일러드 3D 마스크 두 가지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맞춤 뷰티 제품이다. 내 피부에 꼭 맞는 랩 테일러드 세럼을 만드는 일은 온라인상의 문진으로 시작된다. 이 과정을 거친 뒤 건조하거나 예민하거나 개인의 피부 고민에 적합한 추출물 등 다섯 가지 솔루션

을 기반으로 워터리, 젤, 에멀전 등 네 가지 베이스와 결합하는 방식. 약 20가지 조합으로 선보이는 아이오페 랩 테일러드 세럼은 그 자리에서 직접 혼합 기기로 베이스와 추출물을 섞고 용기 라벨과 전 성분 라벨이 붙은 완제품을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하다. 랩 테일러드 3D 마스크 역시 마찬가지. 문진을 통한 피부 상담 후 아이오페드로 얼굴 모양과 사이즈를 측정해 내 얼굴에 맞는 마스크 라인을 디자인하고, 이마, 눈가, 콧등 등 부위별로 피부 고민에 따른 여섯 가지 솔루션 제형을 선택해, 하이드로 젤 마스크를 현장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아이오페 랩에서는 랩 테일러드 서비스뿐 아니라 유전자 분석을 통해 피부 데이터를 분석하고(유전자 채취 후 분석까지 2주 정도 소요된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피부 미래 솔루션, 피부 정밀 진단을 통한 피부 고민별 프로그램 등 다섯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10**

EDITOR: AHN SAE ROM



아름다움은 자란다

아름다움에 대한 설화수의 생각을 전하는 #아름다움은 자란다 캠페인에 자신의 분야에서 꿈을 이루며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 정경화, 이정은, 송경아, 황소윤이 동참했다.



‘여자 나이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같아서 23일부터 잘 팔리다가 26일부터는 반값 할인에 들어가고, 그 이후로는 팔리지 않는다’라거나 서른 넘은 여자는 ‘상폐녀(상장폐기녀)’라는 등, 세간에는 여성의 나이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이야기들이 범람한다. 이런 말들에 기분이 나쁘다가도 생기가 넘치는 20대 여성을 보면, 그 젊은 에너지가 뿜어내는 아름다움에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성의, 아니 인간의 아름다움을 단지 눈에 보이는 젊음에만 국한할 수 있을까? 설화수는 이런 질문에 ‘아름다움은 자란다’라는 캠페인으로 답한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통념과 선입관에 맞서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이 캠페인에는 쟁쟁한 앰배서더들이 동참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늦깎이 영화 배우로 칸과 아카데미를 섭렵한 이정은, 데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고의 모델로 손꼽히는 송경아, 개성 있는 뮤지션 황소윤이 그

주인공이다.

살아 있는 전설 정경화는 지금도 매일매일 더 배우고 있다며, “나만의 아름다운 소리가 무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나이와 함께 내가 깊어지는 거죠”라고 말한다. 전형적인 여배우의 외모가 아니라는 세간의 평가에 이정은은 “지금의 제 눈빛 그리고 표정… 시간이 만들어낸 이 얼굴이 전 좋아요”라고 담담히 응대한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요?” 하고 되레 그녀의 외모와 나이에 대해 평가하는 시선에 질문을 던진다. ‘모델 바닥이 수명이 짧다’, ‘결혼하고 애 낳으면 끝이다’란 속설에 20년 넘게 톱 모델 자리를 지켜온 커리어로 답하는 송경아는 “베테랑 모델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바닥 수명은 제가 정해요”라고 말한다. 개성 넘치는 음악만큼이나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황소윤은 “10년이 지나서도 좋아하는 일을 하겠

다”라고 포부를 밝힌다.

20대의 아름다움을 위해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나이가 때로 다시 가고 싶을까? 스무 살의 아름다움은 지금의 아름다움보다 나은 걸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에서 멀어지는 일일까?

이 모든 질문에 설화수와 4명의 앰배서더는 입을 모아 아니라고 답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젊음이 아름다움을 대표할 수는 없으니까, 나이 든 지금 10년, 15년 전보다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몇 살이든, 무엇을 하든, 지금의 당신이 가장 아름다우니까. 달력을 넘기거나 거울을 볼 때마다 우울해졌다면, 나이를 말할 때마다 웬지 모르게 위축되었다면 설화수 #아름다움은 자란다 캠페인 영상을 보며 이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보자. 당당한 그들의 모습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LD**

EDITOR: CHOI HYANG JIN



달콤하고 시원한, 독특한 매력을 지닌 구딸 파리의 여름 향수

시원하게 즐기는 달콤한 과일 향: 구딸 파리 뽀띠 셰리오 드 두왈렛 달콤한 로즈 마스크 향과 서양배, 복숭아의 과일 향이 어우러진 사랑스럽고 달콤한 향. 100ml, 19만8천원.



여름을 위한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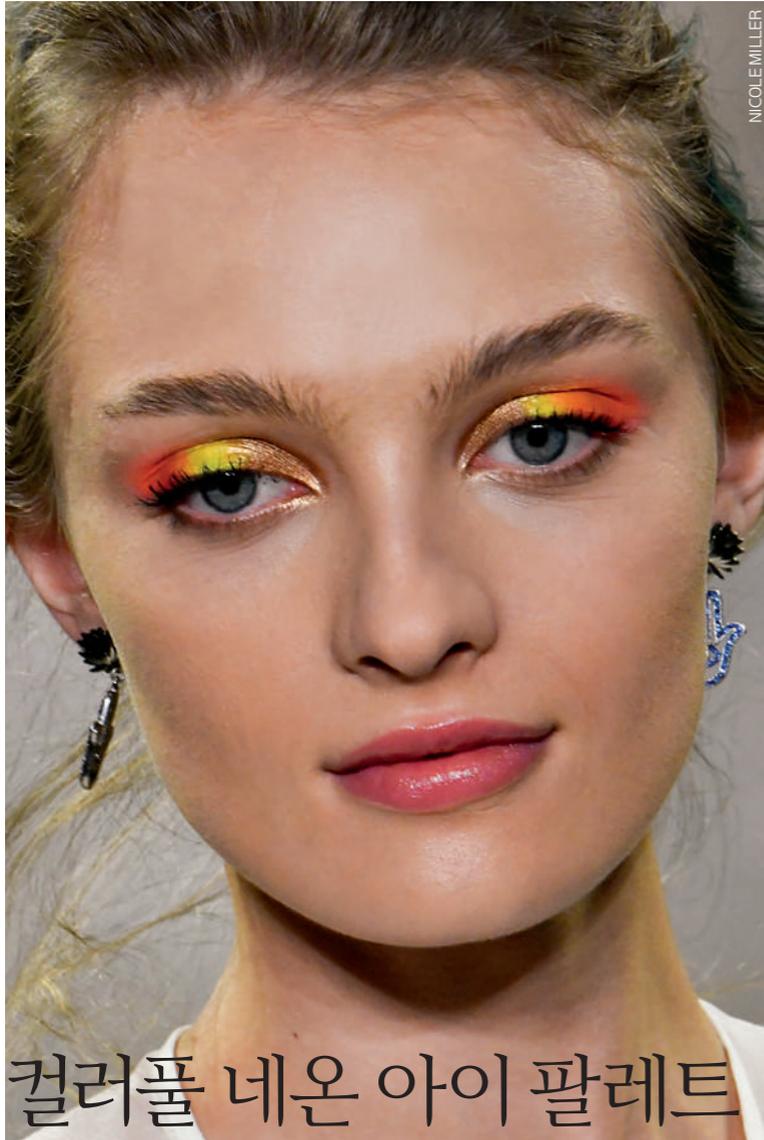
싱그러운 여름의 정취를 담은 구딸 파리 향수로 상쾌하게 볼케이수를 낮춰보자

눈이 부실 정도로 따가운 햇살과 무성한 초록빛 풀잎, 다채로운 향이 풍성하게 채우는 계절, 여름이다. 여름을 맞아 옷차림이 가벼워지듯 향수도 이 계절에 어울리는 향이 따로 있다.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 선구적 인물의 역사적 스토리에서 받은 영감을 향으로 표현하고, 향기로 이야기를 완성하는 프랑스 퍼퓸머리 구딸 파리의 베스트 셀러 뽀띠 셰리는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은 향이지만, 특히나 하늘 거리는 선 드레스처럼 여름에 딱 어울리는 향이다. 구딸 파리의 뽀띠 셰리는 플로럴 계열 향수로 부담스럽지 않고 은은한 향이 불쾌한 체취를 자연스럽게 감춰주고 잔향이 오래가는 것이 특징.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출연한 뒤, 대세 배우로 떠오른 한소희와 함께 촬영한 구딸 파리의 화보에서는 구딸 파리의 향기와 분위기를 한눈에 느낄 수 있다. 핑크빛 장미처럼 사랑스러운 모습부터 마치 요정 같은 청초하고 싱그러운 모습까지 구딸 파리의 향을 다양하

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해석해 선보인 이번 화보에서 특히 이슈가 된 제품은 뽀띠 셰리다. 꽃잎이 프린트된 시폰 원피스와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장미, 그리고 핑크빛 메이크업으로 한층 사랑스러워 보이는 한소희의 모습에서 뽀띠 셰리의 향을 말지 않고도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핑크빛으로 물든 이 화보 사진에서도 느껴지듯 '뽀띠 셰리는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플로럴 향이 매력적인 향수다. 과즙이 퍼져 듯 달콤한 복숭아, 서양배와 로즈 마스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은은하면서도 부드러운 잔향으로 출시된 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구딸 파리의 베스트셀러다. 일명 '한소희 향수' 뽀띠 셰리는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관교점 등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백화점 온라인 몰 그리고 방판 채널에서도 만날 수 있다. 구딸 파리의 향수로 강렬하면서도 향기로운 여름의 향을 발산해보자. **10**

EDITOR: AHN SAE F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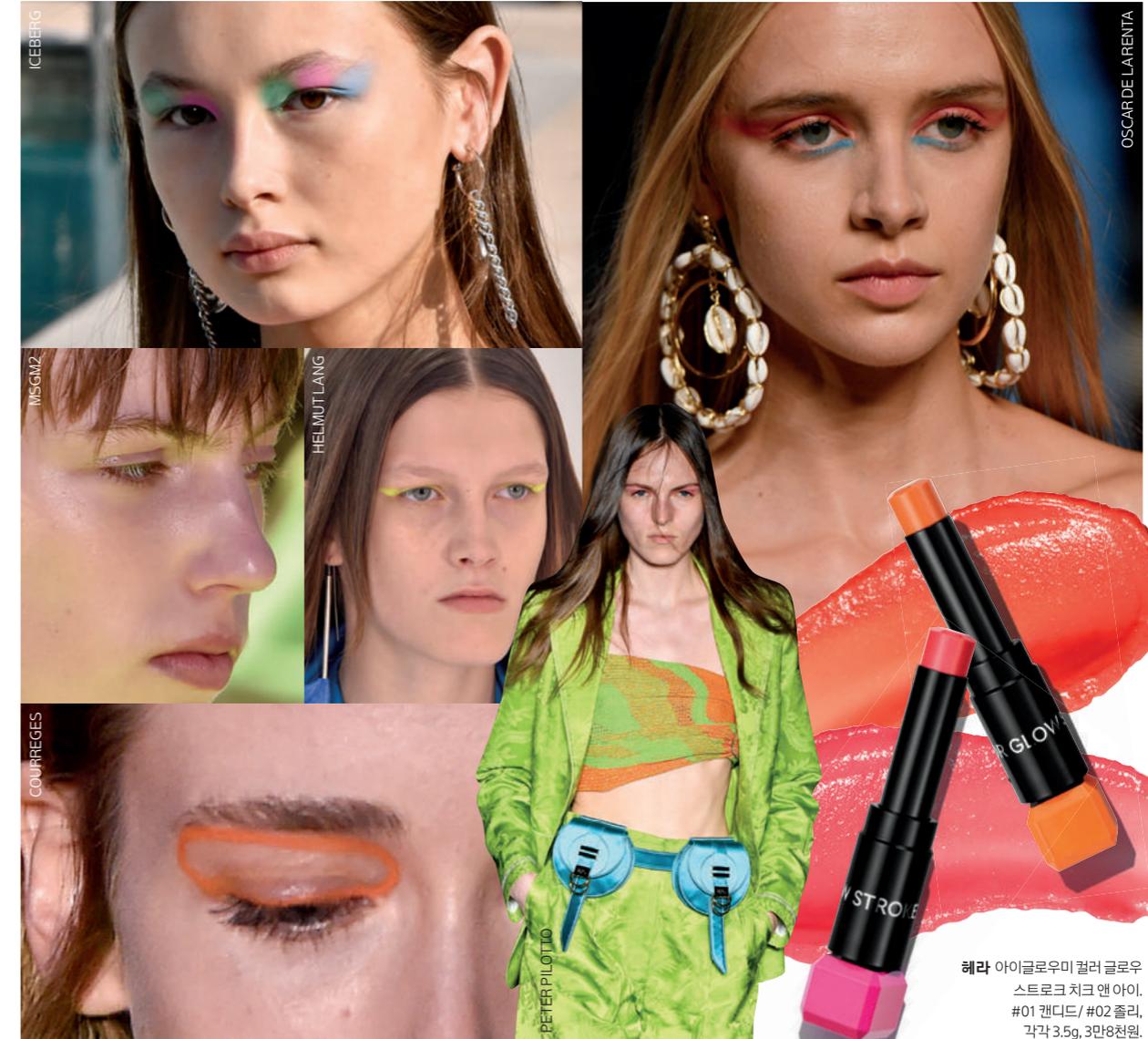


컬러풀 네온 아이 팔레트

패턴은 중요하지 않다. 울여름, 생동감 있는 네온 컬러 아이로 위트 있는 서머 메이크업을 시도해볼 것.



헤라 아이글로우미 컬러 글로우 스트로크 칩크 앤 아이. #03 알리 3.5g, 3만8천원. 멀티 스틱 타입의 아이 색도로 부드러운 제형이라 칩크 블러셔로도 사용할 수 있다.



헤라 아이글로우미 컬러 글로우 스트로크 칩크 앤 아이. #01 캔디드 / #02 줄리. 각각 3.5g, 3만8천원.

EDITOR: AHN SAE ROM, PHOTOGRAPHY: WWW.GETTYIMAGES KOREA, CHOI SEUNG HYUK(제홍)

일명 유포리아 메이크업.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Z세대 아이콘들이 등장하면서 메이크업 트렌드 역시 더욱 과감하고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특히 채도 높은 네온 컬러를 활용한 아이 메이크업이 런웨이를 장악했다. 또렷한 블랙 아이라이너 대신 네온 펜으로 과감하게 표현한 르메르, MSGM, 헬무트 랭의 캐츠 아이 룩이나 마치 물감을 손가락으로 짚은 듯 아이홀을 채워 바른 살바토레 페라가모, 아이스버그의 페인팅 메이크업이 대표적인 예다. 이 밖에도 피터 필로토와 쿠레주의 런웨이에선 눈두덩에 그림을 그리듯 아이라인의 경계를 깬 아티스틱한 네온 아이라인을 선보였고, 안나 수이는 네온 컬러 베이스 위에 글리터 라이너를 더하며 다채로운 네온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서양인에 비해 눈꺼풀이 두껍고 아이홀이 깊지 않은 동양인이 네온 아이 메이크업에 도전하려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과하게 여러 네온 컬러를 바르면 눈이 부어 보이거나 자칫 우스꽝스러울 수 있으므로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접근해볼 것. 눈썹을 부드러운 브라운 계열로 그린 뒤 눈꼬리 부분에 네온 컬러로 포인트를 주거나 눈을 깜박일 때 살짝 보일 정도로 컬러 라인을 그리거나, 손으로 대충 발라도 자연스럽게 발색하는 멀티 아이 밤 제품을 아이세도 대신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정해진 규칙은 없다. 그저 다양하게 시도하며 즐겨보라. 울여름, 다양한 네온 컬러를 활용한 아이 메이크업으로 나만의 서머 메이크업을 완성해보자. **10**



여름 안에서

휴양지 무드가 짙게 느껴지는 서머 메이크업.

SUN-KISSED

여름의 뜨거운 별과 바람에 자연스럽게 그을린 듯한 건강한 태닝 룩. 헤라 아이글로우미 컬러 글로우 스트로크 #02 졸리를 눈두덩에 살짝 바르고, #04 스니커를 브로저로 활용했다. 광대뼈를 따라 사선으로 그리면 성숙하고 시크한 느낌을, 뺨 앞쪽과 콧잔등에 터치하면 소녀처럼 귀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PINK ADDICT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성숙하고 트렌디한 느낌을 줄 수 있다.
헤라 아이글로우미 컬러 글로우 스트로크 #01 캔디드를 눈두덩과 광대뼈 앞쪽에 은은하게 펴 발라
원 톤 메이크업을 하면 순수하고 키치한 느낌을, 눈썹 앞머리와 뺨 앞쪽에 블러셔로 활용하고,
핑크 컬러의 아이라인과 매치하면 보다 트렌디한 느낌을 완성할 수 있다.





MODEL: SEOJUN, ALICE, MAKEUP: JAMIE YOON, JANE PARK, DOYO KIM (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NEON PLAY

헤라 아이글로우미 컬러 글로우 스트로크 #03 알리처럼 네온 빛이 가미된 옐로는 울여름 가장 주목받는 컬러.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평상시처럼 체크 메이크업을 한 뒤 살짝 덧발라 옐로 뉘앙스를 더해볼 것. 뺨 위쪽에 터치해도 좋고, 아랫눈썹 라인 앞쪽에 터치해도 좋다. 과감한 메이크업이 돋보이는 휴양지니까!

휴양지의 당신을 위한 뷰티 파우치

휴가를 즐기는 동안 당신의 아름다움을 지켜줄 바캉스 파우치 속 필수품.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세안 후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증상이 있을 때면 이 제품을 찾게 된다. 자극이 거의 없는 데다 세안 후 피부가 촉촉해 스킨케어 제품의 효과가 배가되는 듯하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설화수 순행클렌징폼, 200ml, 3만7천원.

#모공속까지깔끔하게
#순한클렌징
#수분클렌징

설화수 순행클렌징폼

강력한 자외선에 노출돼 빨갛게 달아오른 피부에 자극적인 클렌저나 스크럽제를 사용하는 것은 성냥으로 마른 장작을 긁는 것처럼 위험한 행동이다.

자외선 차단제와 땀, 먼지, 염분 등으로 범벅이 된 피부를 자극 없이 깨끗하게 씻으려면 반드시 순한 클렌징 폼을 사용해야 한다.

설화수 순행클렌징폼은 거품이 조밀해 노폐물을 말끔히 없애주고, 부평초와 울피 성분이 수분을 공급해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준다.

“써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크림! 끈적이지 않고 산뜻한 젤 제형에다 피부속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줘 몇 통째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다.”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보나

헤라 아쿠아볼릭 하이드로-젤 크림, 50ml, 5만8천원.
Limited 100ml, 8만5천원.

#아쿠아토닝
#수분폭탄
#연꽃추출물



헤라 아쿠아볼릭 하이드로-젤 크림

피부 속에 고인 열감을 식히고 푸석한 피부에 수분을 급속히 충전하는 데는 수분 젤 크림이 최고다.

이 중에서도 헤라 아쿠아볼릭 하이드로-젤 크림은 연꽃 추출물과 천연 유래 보습 성분이 피부에 수분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피부 스트레스를 진정시켜 수분이 가득한 맑고 투명한 피부로 바꿔준다.



AMOREPACIFIC

TIME RESPONSE
Skin Renewal Mist

“미스트가 얼굴에 닿는 순간부터 다르다. 가볍고 금방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에센스를 바른 듯 영양이 풍부한 수분감이 오래 지속되는, 비싼 값을 하는 명품 미스트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
200ml, 12만원

#그린티의생명력
#에센스미스트
#안티에이징미스트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

건조해 버석거릴 듯한 피부에 구세주가 돼주는 것이 미스트지만, 잘못 선택하면 피부에 뿌린 미스트의 수분이 날아가며 피부 표면의 수분까지 증발시켜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 해결책은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미스트를 선택하는 것. 녹차 생잎의 스킨케어 유효 성분과 녹차 씨 오일 등 강력한 식물성 보습 성분을 함유한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라면 더할 나위 없다.



primera
Cream
Alpine Berry
Watery

Alpine Berry Complex™
Alpine Berry Watery Cream:
A cream that provides rich hydration and vitality with Alpine Berry Complex™ while nourishing the skin with coconut originated oil • **Key Ingredients** 1. Alpine Berry Complex™, 2. Coconut Originated Oil, 3. Arctamin

“은 가족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수분 크림. 텍스처가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아 사계절 내내 바를 수 있고, 순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피부가 민감한 사람도 안심하고 바를 수 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영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50ml, 3만7천원

#사계절수분크림
#생기부여
#윤기케어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여행용 파우치를 꾸릴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제품의 무게와 활용도.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은 가벼운 용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순하고 편안한 텍스처를 담은 제품이라 휴양지에서 제값을 톡톡히 한다.



“샤워하면서 목은 각질까지 없앨 수 있는 스마트한 제품. 상큼한 프레쉬-업과 감각적인 킵-칼, 두 가지 향이라 그날의 기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

-프리랜스 에디터 안새롬

프리메라 아로마바디스크럽 워시 킵-칼. 230ml, 2만5천원.
프리메라 아로마바디스크럽 워시 프레쉬-업. 230ml, 2만5천원.

#자연유래스크럽
#각질제거아로마케어
#4-FREE

프리메라 아로마 바디 스크럽 워시

수영복을 입기 전 필수 점검 사항 중 하나가 목의 목은 각질. 몸에 각질이 많으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태닝을 할 경우 얼룩덜룩하게 탈 수 있으므로 순한 바디스크럽으로 목은 각질을 없애야 한다. 프리메라 아로마바디스크럽 워시는 바디 워시에 포도씨, 호두 껍질 파우더 등 자연 유래 스크럽 성분이 들어 있어 샤워하면서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편리하고 간편한 제품이다. 부드러운 향을 선호하면 킵-칼을, 상쾌한 향을 좋아하면 프레쉬-업을 선택하면 된다.



“최근 출시된 신제품 중 가장 신박한 아이템이다. 립스틱처럼 굵고 손으로 쓱쓱 퍼뜨리기만 해도 예쁘게 메이크업이 되고 컬러도 아주 트렌디해 모든 컬러가 소장각이다.”

-프리랜스 에디터 안새롬

헤라 아이글로우미 컬러 글로우 스트로크 치크 앤 아이.
(위부터) #03 알리/ #04 스니커/ #01 캔디드/ #02 쥘리, 각각 3.5g, 3만8천원.

#썸머메이크업 완성템
#리미티드 소장각
#힙스터 아이템

헤라 아이글로우미 컬러 글로우 스트로크 치크 앤 아이

아이섀도우와 치크 블러셔로 활용할 수 있는 헤라 아이글로우미 컬러 글로우 스트로크 치크 앤 아이는 바탕스용으로 딱! 네온 빛이 가미된 트렌디한 컬러로 여름 휴양지에 꼭 어울리는 맑은 발색일 뿐 아니라 여행용 파우치도 가볍게 만들어줄 멀티템이다.

건강한 미식(美食) 생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늘어난 체중이 아직 그대로인데, 슬슬 미뤄뒀던 미팅과 약속이 줄줄이 이어지니

부기가 빠질 틈이 없다. 오랜만에 운동을 해보려고 해도 빠근한 무릎이 문제.

시리고 침침한 눈 때문에 종일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빈둥거리기도 쉽지 않다. 이렇듯

들어진 생활의 밸런스를 바로잡아 여름을 예쁜 모습으로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믿음직한 이너뷰티 제품이 필요하다.



휴대폰 글자 크기를 자주 키우게 된다면, 트루아이

현대인의 눈이 느끼는 피로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게다가 아이 메이크업을 하거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는 피로가 가중된다. 이제 안구건조증이나 시력 저하 등은 흔하고, 20~30대가 노안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맘 때가 되면 눈은 더욱 괴롭다.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으로 눈이 피로를 회복할 시간이 줄고, 강렬한 여름 자외선 때문에 노인성 안구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눈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며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등의 성분을 포함한 영양제를 챙겨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 특히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의 구성 물질인 루테인은 노화로 줄어들 수 있는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해 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데, 자연적으로 합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식품 등으로 섭취해야 한다.

바이탈뉴티 트루아이. 180mg×30캡슐+160mg×30캡슐, 5만원.

핵심 성분 노화로 줄어들 수 있는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하는 마리골드꽃 추출물(루테인),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헤마토크스 추출물,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 E와 구리, 정상적인 세포분열을 촉진하는 아연.

권장 대상 눈이 침침한 중년층, 눈이 쉽게 피로한 사람, 컴퓨터나 휴대폰을 오래 보는 사람, 야외 활동이 많아 자외선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 밤낮으로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

섭취 방법 성인 1일 1회 2캡슐.



장마철에 무릎이 꼭꼭 쑤신다면, 조이스텝

무릎이나 허리가 쑤시고 저리는 것은 비단 중 장년층만의 일은 아니어서, 디스크 관련 병원을 찾으면 20대 환자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관절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1년 중 가장 괴로운 시기가 장마철.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지는 증상은 그 원인이 아직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으나 습도가 높으면 체내 수분이 증발하지 못해 관절 내에 물이 차기 때문이라는 설이나 기압이 낮으면 관절 내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관절 통증은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강황. 바이탈뉴티 조이스텝에 함유된 강황 추출물은 6주 섭취 시 통증 등이 감소되는 것으로 식약처에서 효과를 입증한 만큼 믿고 먹을 수 있다. 거기에 근육과 신경의 기능을 유지하는 마그네슘과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를 더해 발걸음을 한결 가볍하게 해준다.



바이탈뉴티 조이스텝. 400mg×120정, 6만원.
핵심 성분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황 추출물,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한 마그네슘,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줄이는 비타민 D.

권장 대상 등산, 테니스, 에어로빅 등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 활력을 되찾고 싶은 사람, 주 3회 이상 하이힐이나 불편한 신발을 신는 사람, 오랫동안 서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불편한 사람.

섭취 방법 성인 1일 1회 4정.





매일 지키고 싶은 콜라겐 습관, 슈퍼콜라겐

식품 속 콜라겐은 그 분자량이 크고 구조가 복잡해 많은 양을 섭취해도 흡수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저분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 바이탈뉴티 슈퍼콜라겐에는 저분자 피쉬콜라겐이 3,300mg 함유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콜라겐을 섭취할 수 있다. 더불어 콜라겐은 특유의 비린 맛 때문에 섭취 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슈퍼콜라겐은 달콤한 베리 맛 앰프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콜라겐 관리를 즐길 수 있다

바이탈뉴티 슈퍼콜라겐. 25ml×30앰플, 10만원.

핵심 성분 흡수가 빠른 저분자 피쉬콜라겐 3,300mg, 유산균녹차발효추출물,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엘라스틴, 비타민C, 비오틴 등.

권장 대상 맛있고 간편하게 콜라겐을 섭취하고 싶은 사람, 흡수율이 높은 저분자 피쉬콜라겐을 섭취하고 싶은 사람.

섭취 방법 성인 1일 1회 1앰플.

여성의 건강 밸런스를 위한, 프림로즈

월경을 하는 여성의 약 75%가 겪고 있다고 알려진 월경전증후군. 매달 7~10일간 우울, 두통, 변비, 메스꺼움, 피부염 등의 증상을 겪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 괴로운 건 그 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 다만, 평소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식품을 섭취해보거나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바이탈뉴티의 프림로즈는 감마리놀렌산이 함유된 보리지종자유와 달맞이꽃종자유가 들어 있어 여성의 혈행 건강 및 월경 전 불편한 상태 개선, 면역 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바이탈뉴티 프림로즈. 500mg×120캡슐, 5만원.

핵심 성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개선, 월경 전 불편한 상태 개선, 면역 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마리놀렌산.

권장 대상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혈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여성,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여성, 월경 전 신체에 불편함을 느끼는 여성, 피부 건강이 고민인 여성.

섭취 방법 성인 1일 2회, 1회 2캡슐 물과 함께 섭취.





여름철, 반복되는 장 트러블이 걱정이라면, 프로바이오

이제 건강 유지의 기본으로 인식되는 유산균. 건강한 몸의 시작이 건강한 장이라는 믿음이 확산되며 수많은 유산균 제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좋은 제품을 고르는 안목을 갖춰야 할 때다. 좋은 유산균 제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원재료와 균수를 꼭 확인해야 한다. 유기농 녹차에서 유래한 녹차 유산균을 포함한 10종 복합 유산균 1백억 마리가 들어 있는 바이탈뷰티의 프로바이오면 합격. 좋은 성분이 장속에서 잘 증식할 수 있게 돕는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를 함유했는지, 유산균을 잘 코팅해 무사히 살아서 장에 도달하는 지등도 살펴봐야 한다.



바이탈뷰티 프로바이오. 1g×60포, 5만5천원.
핵심 성분 세계최초 특허 아모레퍼시픽 독점유산균인 녹차유래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가 포함된 10종 균주 함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부원료)
권장 대상 배변이 불규칙한 사람, 급격한 환경 변화나 식습관 변화를 겪은 사람, 활기찬 생활을 위해 장 건강이 필요한 사람, 신체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어린이, 노화로 장 활동이 둔화된 중·장년층.
섭취 방법 성인 1일 2회 1포씩, 어린이 1일 1회 1포 섭취.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 찐 뱃살이 빠지지 않았다면, 슬리머디엑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생긴 가장 큰 문제가 뱃살일 듯.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불어나는 뱃살은 운동이나 식습관 조절로 쉽게 빠지지 않아 걱정이 더욱 크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이 섬유를 포함한 보조제가 필요한 이유다.

바이탈뷰티 슬리머디엑스. 25ml×30캡슐, 9만원.
핵심 성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만의 원료,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권장 대상 복부 지방을 포함한 체지방 관리가 시급한 사람, 꾸준한 보디라인 관리와 유지가 필요한 사람.
섭취 방법 성인 1일 1회 1캡슐.



맛있는 음식 앞에서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식사 필수품, 메타그린 골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체지방률로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외식 문화가 풍요해지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대세인 요즘, 우리에게 맛있고 익숙한 음식을 단호하게 건강을 위해서 끊기 쉽지는 않다. 나이가 들어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면 체지방이 잘 쌓이고 콜레스테롤이 쉽게 축적되기 때문에 식습관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이럴 때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개선을 위한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와 체지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 중 하나가 녹차에서 추출한 카테킨이다.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는 유기농 녹차의 잎에서 추출한 카테킨에 부원료로 녹차꽃, 녹차씨를 포함한 녹차유래 성분 다섯 가지를 더한 녹차건강기능식품이다. 비타민C와 비타민D까지 함유되어 대사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한 식습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520mg×90정, 5만5천원.
핵심 성분 항산화,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녹차 추출물,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C,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D.
권장 대상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 체지방이 많은 사람, 지방과 탄수화물을 즐겨 먹는 사람, 최근 체중이 불어난 사람,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
섭취 방법 성인 1일 1회 3정을 식후, 물과 함께 섭취.



혈행과 눈 건강, 기억력까지 관리하고 싶다면, 오메가케어

서구화된 식습관, PC와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혈행, 두뇌 및 눈 건강 관리는 이제 필수가 되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는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세포의 보호 및 세포의 구조 유지, 신체의 성장, 발달, 원활한 신진대사 및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한다.

오메가-3 관련 제품을 선택할 때 꼭 살펴봐야 할 것이 안전성. 대부분이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추천할 만한 제품은 남태평양 맑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멸치에서 추출해 중금속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바이탈뷰티의 오메가케어. 자연 상태 오메가-3와 형태가 유사한 r-TG 오메가-3를 함유해 체내 흡수율이 높다. 혈행과 눈 건강,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3중 기능성 제품으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b**



바이탈뷰티 오메가케어. 550mg×120캡슐, 5만원.
핵심 성분 남태평양 맑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멸치에서 추출한 r-TG 오메가-3를 주원료로 함유. 빌베리, 블루베리, 블랙커런트 등 베리혼합추출물과 함께 블랙커런트 종자유, 녹차씨유를 부원료로 함유.
권장 대상 잦은 외식, 스트레스 등 바쁜 생활로 혈행 개선이 필요한 사람, 육류 및 인스턴트 위주의 불균형한 식생활로 혈중 중성지방 개선이 필요한 사람,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잦은 사용으로 건조한 눈이 걱정되는 사람, 혈행 뿐 아니라 눈 건강과 기억력 개선까지 관리하고 싶은 사람.
섭취 방법 성인 1일 1회 4캡슐, 청소년 1일 1회 2캡슐.

초미세먼지까지 철저히 방어하라 설화수 상백크림

자외선에 이어 피부 노화와 잡티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초미세먼지.

자외선 차단과 동시에 초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는 없을가? 설화수는 상백크림을 그 해법으로 제안한다.

설화수 상백크림
SPF50+/PA++++.
No.2 밀키 톤업
산뜻한 밀크 타입의
텍스처로 가볍고
끈적임 없이 피부를
톤업시켜주는
저자극 안티폴루션
선크림. 30ml, 6만원.
50ml, 8만5천원.

설화수 상백크림
SPF50+/PA++++.
No.1 크리미 글로우
부드러운 크림 타입의
텍스처가 촉촉한 광채
피부 연출을 돕는
저자극 안티폴루션
선크림. 30ml, 6만원.
50ml, 8만5천원.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No.1 크리미 글로우
-눈시림을 거의 느끼지 못함

100%

No.1 크리미 글로우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 보호 효과 체감

97%

No.2 밀키 톤업
-피부가 자극 없이 편안함

100%

시험 대상: 45명
시험 기간: 2020년 1월 9일~23일
시험 기관: ACORN

설화수
상백크림

1

도시 환경에 맞서 피부를 지키는 유해 환경 방어막

설화수 상백크림은 SPF50+/PA++++의 뛰어난 자외선 차단 효과로 생활 자외선은 물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여기에 강력한 피부 방어막을 만들어 초미세먼지(PM2.5) 등 유해 환경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역할까지 한다. 또 밀키 톤업 제품은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기능까지 겸비했다.

2

자극받은 피부를 가라앉히는 진정 방어막

설화수 상백크림은 상백피, 상삼자, 백삼다당체, 오매, 황금으로 구성된 설화수만의 선 케어 포몰러 상백단™을 함유해 열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켜준다.

3

칙칙한 피부를 화사하게 브라이팅 방어막

피부 상태에 맞게 골라 쓸 수 있도록 No.1 크리미 글로우와 No.2 밀키 톤업, 두 가지로 출시한 상백크림은 피부 밝기를 개선하고 멜라닌세포를 줄여 바를수록 피부가 맑고 화사해진다. No.1 크리미 글로우는 촉촉한 광채 피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No.2 밀키 톤업은 보송한 마무리감과 피부 톤업을 원하고, 블루라이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사람에게 알맞다.

“산뜻하게 발리는 데다 밀키 톤업은 톤업 효과도 뛰어나서 이 제품만 바르고 외출해도 될 정도. 마스크에 묻지 않는 점도 만족스럽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파운데이션이 밀리지 않는 것이 자외선 차단제의 큰 덕목인데, 상백크림은 밀착력이 좋아 메이크업 베이스로 활용하기도 좋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선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답답하고 간지러운 느낌이 들어 기피했는데, 상백크림은 아주 가볍고 이물감이 없어 매일 바르게 된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헤라 시그니아 워터
피부를 맑게 정화하는
토털 안티에이징 워터로
이슬처럼 촉촉하고
산뜻한 나르시스-듀™
텍스처가 특징이다.
180ml, 9만5천원.

헤라 시그니아 세럼
나르시스 식물세포
3백만 개의 생명력으로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토털 안티에이징 세럼.
50ml, 22만원.

헤라 시그니아 앰플.
피부에 생기와 탄력을
불어넣는데 탁월한
4주 토털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앰플.
10.2g×4, 25만원.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수선화의 강인한 생명력을 담다 헤라 시그니아

여름에는 그간 사용하던 안티에이징 제품의 텍스처가 무겁게 느껴진다. 그렇다고 안티에이징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헤라는 시그니아 워터와 세럼, 앰플로 가볍지만 강력한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루틴을 제안한다.

시그니아 세럼*
다음 날 피부가 좋아보임

94%

시그니아 앰플**
주름 깊이 완화

5.77%

시그니아 앰플**
피부 탄력 개선

5.88%

* 시험 대상: 성인 여성 31명
시험 기간: 2014년 10월
10일-11월 7일
시험 기관: 오렌지 인텔리전스

** 조사 대상: 성인 여성
23명(43.6±3.8세)
조사 기간: 2015년 10월
20일-11월 9일
시험 기관: (주)더마프로

헤라
시그니아 워터, 세럼, 앰플

①

아침 이슬을 머금은 듯 신선한 나르시스-듀™ 제형

헤라 시그니아 워터는 수선화의 꽃, 잎, 뿌리를 사용하여 추출한 건강하고 맑은 수선화 에너지 나르시스 워터™에 골드 드랍을 고르게 분산시킨 이슬같은 나르시스-듀™ 제형으로 얼굴에 닿는 순간 골드 드랍이 터지며 수분과 영양 성분이 피부 깊숙이 흡수된다.

②

폭발적인 안티에이징 파워 나르시스 스템코드

헤라 시그니아 라인의 출발점은 수선화. 메마른 땅에서도 물을 만나면 싹을 틔우고,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울 정도로 우아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지닌 꽃, 수선화의 생명력과 헤라의 독자적인 기술이 집약된 수선화 식물세포의 고농축 향산화 에너지가 피부에 무한한 생명력을 선사한다.

③

피부 리듬에 맞춘 4주 토털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헤라 시그니아 앰플은 피부 턴오버 주기에 맞춘 4주 프로그램으로 낮에는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고 밤에는 집중 케어로 하루 종일 빈틈없는 안티에이징을 선사한다. 사용 직전 액티브에이션을 통해 집약된 에너지로 집중 안티에이징 트리트먼트를 실현한다.

“겉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땅기는 여름철 피부를 관리하기에 딱 좋은 텍스처다.”

- <마리끌레르> 뷰티 디렉터 윤휘진

“쫘득한 텍스처가 바르자마자 페이스 라인을 잡아준다. 여름에는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다.”

-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시그니아 앰플은 절대 끊을 수 없는 제품. 일주일만 발라도 피땀결이 확연히 좋아져 꾸준히 찾게 된다.”

-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생기 잃은 피부의 구원자 설화수 명의본초앰플

더운 여름철 보양식을 먹듯, 더위와 습기에 기력을 빼앗긴 피부에도 특급 처방이 필요하다.
설화수 명의본초앰플은 생기 잃은 피부를 단숨에 건강하게 되돌려줄 것이다.

설화수 명의본초앰플
피부의 힘을 보충하고
윤곽하게 가꿔주는 8주
집중 안티에이징 앰플.
8mlx4, 20만원.

피부 수분량 증가

37%

피부 윤기 증가

9.4%

피부 수분손실량(TEWL) 감소

-1.6%

4주간 설화수 명의본초앰플
AD 사용에 따른 보습 효과,
피부 윤기 개선, 피부장벽 강화
효능이 확인됨.

설화수
명의본초앰플

①

피부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명의진™

실내와 실외를 오갈 때마다 겪는 극심한 온도 차, 일정하지 않은 취침
시간이나 스트레스 등 기후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피부에 누적된
피로를 없애기 위해 설화수는 인삼, 감초, 당귀, 천궁, 대조(대추)로 구성된
명의진™을 앰플 안에 가득 담았다. 이 놀라운 앰플이 흐트러지기 쉬운
피부 컨디션을 바로잡아 건강한 피부로 가꿔준다.

②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8주 프로그램

앰플 한 병이 약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4주의 피부
턴오버 주기를 두 차례 반복할 동안 피부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기후나 생활환경의 변화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피부로 가꿔준다.

③

영양이 풍부한 고농축 텍스처

작은 앰플 한 병에 농축된 쫄쫄한 텍스처가 가득 들어 있어 지치고
늘어진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탄력과 생기를 부여한다.

“여름에도 얼굴이 팽기는
약건성 피부를 구원할
제품이다. 바르면 피부 속 깊이
수분과 영양이
확 차는 느낌.”

-프리랜스 에디터 안새롬

“단 하루만 써도 다음 날
피부가 달라진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손에 닿는 피부의
감촉이 달라 메이크업 전
모델에게 종종 발라준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영

“피부가 푸석하고 생기를 잃었을
때 이만큼 효과적인 제품이
없다. 엄마 화장대에서 몰래
써본 뒤 인생템을 만난 기분이
들어 꾸준히 구매하는 제품.”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상은



서머 프리 베이스

뜨거운 햇볕과 눅눅한 습기, 땀의 공격에도 상큼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는

서머 베이스 메이크업 비법을 공개한다.

LOOK 1. FRESH BASE

에어컨 바람 때문에 여름에도 피부가 건조하다면 이슬이 맺힌 듯 촉촉하고 투명한 프레시 스킨으로 연출할 수 있는 수분은 물론 영양까지 풍부한 쿠션 컴팩트와 미스트가 해법이다.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컴플릿 쿠션 컴팩트 SPF50+/PA+++ 15g×2, 12만원.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 200ml, 12만원.
아모레퍼시픽 듀얼 너리싱 립 세럼 #03 오렌지 블러썸, 14ml, 4만원.

- step 1 촉촉하고 얇게 피부에 밀착되는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컴플릿 쿠션 컴팩트를 퍼프로 T존과 뺨에 살짝 묻힌 뒤 톡톡 두드리며 퍼바른다.
- step 2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를 얼굴에 가볍게 뿌리고, 쿠션 컴팩트 퍼프로 톡톡 두드리 물기를 머금은 피부를 연출한다.
- step 3 입술에 아모레퍼시픽 듀얼 너리싱 립 세럼 #01 골든 글로우를 입술 전체에 발라준 뒤, #03 오렌지 블러썸을 안 쪽에 덧발라 도톰한 입술로 완성한다.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LOOK 2. SOFT MATT BASE

오후만 되면 얼굴이 번들거리는 지성 피부를 가졌다면 하루 종일 보송보송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매트한 베이스 메이크업 노하우를 배워보자.



설화수 상백크림 No.2 밀키 톤 업 SPF50+/PA++++, 30ml, 6만원, 50ml, 8만5천원.
설화수 퍼펙팅 파운데이션 SPF17/PA+, 35ml, 7만원.
설화수 퍼펙팅 파우더 01호 투명, 20g, 6만5천원.

- step 1 설화수 상백크림 No.2 밀키 톤 업을 얼굴 전체에 얇게 발라 자외선을 차단하는 동시에 피부 톤을 균일하게 정돈한다.
- step 2 과도한 유분을 덜어주고 고급스러운 윤기가 흐르는 세미 매트 피부로 연출해주는 설화수 퍼펙팅 파운데이션을 얼굴 전체에 얇게 퍼바른다.
- step 3 T존과 턱, 뺨 중앙 등 피지가 많이 올라오는 부위에 설화수 퍼펙팅 파우더 01호 투명을 가볍게 발라 유분을 다시 한 번 덜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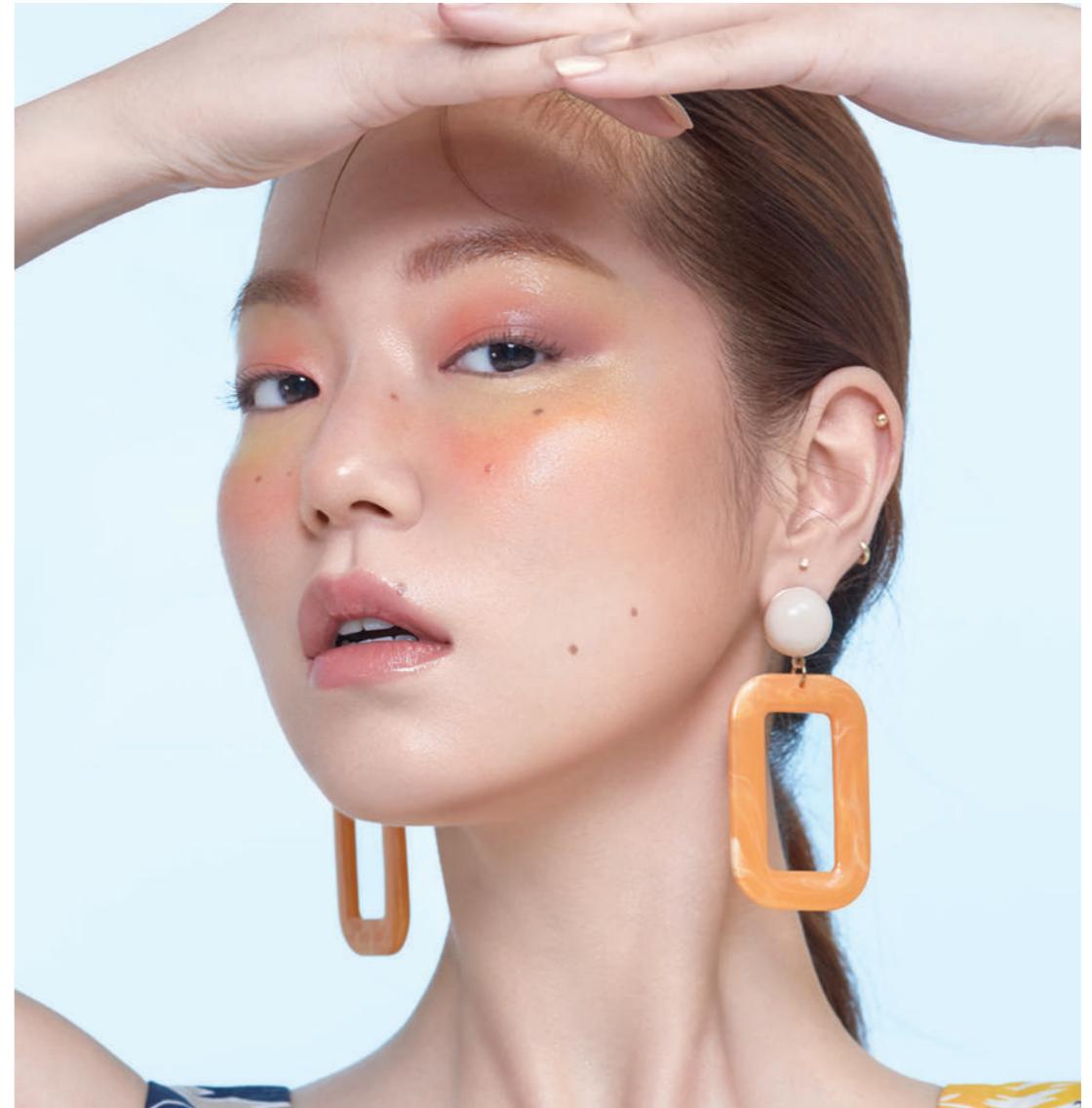
LOOK 3. VELVET MATT BASE

과도한 유분기 없이 보송보송하되, 벨벳 같은 광택이 돌길 원한다면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이 제격이다.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SPF15/PA+.
35ml, 6만원.
헤라 HD 퍼펙트 파우더
팩트 SPF 30/PA+++.
21호 내추럴 베이지,
10g, 5만5천원.
헤라 페이스 디자인
블러셔, #05 스킵핑
핑크, 10g, 4만8천원.

- step 1**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로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른다. 쿠션 컴팩트 퍼프로 눌러주면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완벽하게 밀착된다.
- step 2** 헤라 HD 퍼펙트 파우더 팩트 21호 내추럴 베이지를 브러쉬로 얼굴 전체를 훑듯 가볍게 바른다.
- step 3** 헤라 페이스 디자인 블러셔 #05 스킵핑 핑크를 광대뼈를 따라 가볍게 바르면 자연스러운 홍조가 도는 동시에 피지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LOOK 4. TANNING GLOW

휴양지에 다녀온 것처럼 햇볕에 자연스럽게 그을린 듯한 피부를 연출하고 싶다면
헤라의 신제품 아이글로우미 컬렉션을 추천한다.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 SPF25/PA++.
35ml, 6만5천원.
헤라 아이글로우미 컬러
글로우 스트로크 치크
앤 아이 #02 즐리, 3.5g,
3만8천원.
헤라 아이글로우미 컬러
글로우 스트로크 치크
앤 아이 #03 알리, 3.5g,
3만8천원.

- step 1**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른다.
- step 2** 헤라 아이글로우미 #02 즐리를 눈두덩과 광대뼈 앞쪽에 펴 발라 햇볕에 자연스럽게 그은 듯한 피부를 연출한다.
- step 3** 헤라 아이글로우미 #03 알리를 눈 아래에 살짝 터치에 그라데이션하면 메이크업에 나만의 한 곳 차이를 더할 수 있다.

PHOTOGRAPHY: CHOI SEUNG HYUK(지웅), MODEL: MEGU, MAKEUP: JAMIE YOON, VIVIAHN(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PARK CHANGDAE, STYLING: PARK MI KYUNG

나는 도시 농부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식자재를 얻기 위해, 아이들에게 생명의 신비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싶어서, 혹은 힐링하려고 등 여러 이유로 집이나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는 도시 농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집 혹은 동네나 근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던 지난 몇 달 사이, 소셜 미디어에는 다양한 반려 작물이 등장했다. 심자마자 자라기 시작하는 파부터 꾸준히 싱싱한 잎을 키워내는 상추, 귀여운 딸기나 어쩔지 키우기 쉽지 않을 것 같은 아보카도까지, 다양한 작물을 직접 키우는 사람들은 애칭을 지어주거나 성장 과정을 실시간으로 자랑하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다. 이렇게 도심에서 소소하게 농사를 짓는 '이번 파밍'을 꽤 오래전부터 즐기며 이제는 직접 키워 먹는 재미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여성 4명을 만났다.

처음 농사를 짓던 때가 기억나나요?

그럼요. 원래 요리랑 식물 키우는 걸 좋아했는데, 문득 이 두 가지를 접목해 채소를 직접 키워서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마침 한 백화점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공용 텃밭을 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랑 같이 참가했어요. 매주 적게는 한 번, 많으면 두세 번 그곳을 찾아 다양한 먹거리를 키워죠. 긴 장마 탓에 2주 만에 찾은 텃밭에서 잡초가 내 어깨높이만큼 자란 광경을 보며 울고 싶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사실 잡초는 농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 자르거나 밟아주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는데,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라 무조건 다 뽑았거든요. 그 이후 집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텃밭을 얻어 지금까지 소소하게 작물을 키우고 있어요.

요즘은 무엇을 키우시나요? 처음에는 단기간에 수확할 수 있는 상추 등 잎채소를 키웠어요. 이후 당근, 부추, 래디시, 비트, 콜라비 등 채소부터 애플민트, 페퍼민트 같은 허브까지 다양한 작물을 키웠고요. 최근에는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했는데, 씨앗을 뿌린 뒤 수확하기까지 3년 넘게 걸렸답니다. 제 텃밭에서 가장 오래 키운 채소라 애정이 더가요.

도시 농사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직접 키운 건강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전 그보다 힐링이 된



박선홍

도심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직접 키운 작물로 요리도 하는 도시 농부. 농사 관련 노하우를 담은 <요리하는 도시농부>, 비건 베이킹 북 <채소로 맛있게 구웠습니다>를 발간했으며, 지금은 채소 요리 레시피를 담은 책을 쓰고 있다.

다는 사실이 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할 무렵 정신적으로 좀 지친 상태였는데, 채소를 키우며 자연과 가까워지다 보니 어느 순간 스트레스가 풀리고 웃음이 많아지더라고요. 성공만을 좇던 삶에서 벗어나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어요. 도시 농업에 도전하는 여러분도 채소나 허브를 완벽하게 키우겠다는 생각보다는 작은 씨앗이 자라 수확이 가능한 작물이 되는 과정을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쏟다 보면 수확의 기쁨과 자연이 주는 힐링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거예요.

photographer KIM Z WON
editor LEE SUNG JIN



처음부터 실내에서 농작물을 키우셨나요? 아니요. 아파트에 살면서 자연을 느끼고 내 손으로 농사를 지어 가족들과 유기농 식자재로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어 주말농장이나 아파트 공용 텃밭 등 다양한 곳에서 농사를 지어봤어요. 근데 수도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거나 주변 환경이 지지분한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생겨 결국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실내에서 농사를 짓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빛이 가장 큰 관건인데, 제아무리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라 할지라도 노지와 비교해보면 광량이 40~70%밖에 되지 않아 농작물을 키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식물 재배등 같은 인공 광이 꼭 필요하죠. 반대로 얘기해보면, 빛의 양이 충족된다면 베란다는 물론 식탁 등 실내 어느 곳에서든 충분히 식물을 키울 수 있어요. 공간이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거나 흠에서 생기는 벌레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

최이경

아파트 안에서 식자재를 키우던 노하우를 기반으로 실내에서 채소를 비롯한 식물들을 쉽게 키울 수 있는 키트를 만들었고, 이를 판매하는 키친 가든 물을 운영하고 있다.



로 농작물을 키우는 수경재배가 안전해요.

그런 노하우를 담아 사업을 시작하신 거군요. 직접 농사를 지으며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다 보니, 체계적인 실내 재배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 이미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설명 관련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요. 그래서 직접 가정용 수경재배기와 LED 식물 재배 텐트를 디자인하고, 네덜란드에서 양질의 인공 토양을 수입해 키트를 만들었어요. 이걸로 2017년 환경부 주최 혁신형 예코 디자인 사업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죠. 이렇게 조금만 조사해보면 실내에서도 충분히 농사를 지으며 기쁨을 얻고 힐링할 방법이 있으니,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지 말고 꼭 농작물을 키워보세요.



처음 농사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원래 사회운동이나 여성운동에 관심이 많아요. 이 일환으로 지렁이를 이용해 도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활동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나온 비료로 동네 공터에 꽃을 키우다 보니 농사를 지을 수도 있겠다는 데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당시는 도시 농부라는 용어 자체가 어색할 정도로 도심 속 텃밭을 찾아보기 힘든 때였거든요. 바로 도시 농부 학교에 참여해 집 옥상과 베란다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이렇게 조금씩 농작물을 키우다 보니 도심 속 버려진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겨 정책적으로 공터를 주민들이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어요.

도시 농사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물입과 치유요. 작은 씨앗이 땅을 뚫고 나와 새싹을 틔우고, 그 싹이 커가는 모습은 더없이 감동적이거든요. 저 역시 이런 자연의 에너지와 기운으로 삶의 피로를 치유했고요. 실제로 도시 농부로 사는 많은 사람을 만나며 어찌면 우리는 모두 경작 본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누구나 농작물이 커가는 과정을 보면 행복해하거든요. 더불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나 스스로 먹거리를 재배한다는 긍지,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경험을 쌓고 지구나 생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한다는 점도 긍정적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신연숙
개인 텃밭과 아파트 공동 텃밭을 가꾸는 중. 가까운 지역에서는 정원사와 함께 경의선 숲길 마을 정원사회를 만들고 공동체 정원을 가꾸는 시민정원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도시 농부로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내가 키운 작물로 밥상을 차려 먹는 건 분명 큰 행복이에요. 하지만 더 큰 행복은 근처에 사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함께 농사를 지은 동네 분들과 각자 텃밭에서 재배한 배추나 무, 쪽파 등을 갖고 모여 걸절이를 담그고, 돼지고기 수육을 만들어 옥상 파티를 한 일이 기억에 남아요. 지난해부터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본격적으로 마을정원사 모임을 만들고 8백 평 규모의 공유 정원을 가꾸며 작으나마 공동체 텃밭을 운영하게 된 것도 기쁜 일이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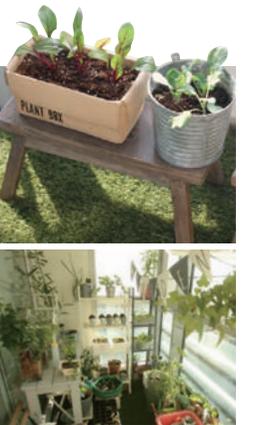
베란다 농사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집에서 벗어나 일부러 주말농장이나 공동 텃밭을 찾아가 농사를 짓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생활 공간에서 농사를 지을 방법을 찾다가 집 안의 땅이라 할 수 있는 베란다는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먹거리 한 가지만 키워보자는 생각으로 화분 하나에 심은 채소가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 다른 채소도 하나둘 키우다 보니 어느새 베란다가 채소밭이 되었어요. 이렇듯 내가 생활하는 공간 내에 밭이 있으니 농사를 짓겠다고 큰 결심을 하거나 시간과 공을 특별히 더 들이지 않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베란다 농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소꿉장난 같은 재미있는 농사라고 할까요?
반대로, 베란다 농사의 어려운 점은요? 편하긴 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햇볕, 바람, 공기, 공간 등 제약이 많죠. 그래서 노지에서 자라는 채소의 크기나 수확량을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집에만 오면 식물이 다 죽지? 난 키우기 쉽다는 채소도 못 키우는 사람인가? 내 손은 마이너스의 손인가? 이런 자책감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베란다 농사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욕심을 버리면 어느새 농사를 놓이처럼 즐기게 될 거예요. 화초를 가꾸듯 집 안 농사를 평생의 취미로 삼고,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하며 건강한 먹거리까지 덤으로 얻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HAIR: SHIN YOU JIN, MAKEUP: BAE HYE RANG, STYLING: LEE GYEONG WON



책을 본 소감 중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가 베란다 농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관련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엄마가 유일한 조언자였죠. 이런 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운영한 블로그가 인기를 끌었고, 거기서 시작된 책이니만큼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들이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화분 대신

재활용품과 생활용품을 이용해 채소를 재배하는 방법을 소개해서 좀 더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고등학교생이 제 책을 보고 가드닝이나 채소 재배, 식물과 관련한 일을 꿈꾸게 되었다는 말이나 우울증을 앓던 분이 베란다에서 채소를 키우며 치유했다는 말이 기억에 남아요.



박희란
베란다 농사의 노하우를 담은 블로그가 큰 인기를 끌며 책 <베란다 채소밭>을 펴냈다. 식물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지금은 플라워숍을 운영하고 있다.



마린 에너지, 해양 심층수를 바르자

뜨거운 여름, 자외선에 자극받아 피부 밸런스가 쉽게 무너지며 트러블이 생기고 건조해

걱정이 많을 때다. 해양 심층수를 함유한 스킨케어 제품으로

피부 기초를 다시 다져보자. 자연이 만든 가장 청정한 물. 태양이

닿지 않은 해양 심층수는 정제수와 차원이 다르다.

editor AHN SAE ROM

생명의 기원이자 천혜의 자원인 바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진 것처럼 바다 역시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바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초의 세포 형태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유기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이 바다 깊숙이 해가 들지 않는 곳의 심층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품고 있다.

해양 심층수란 표층수 아래,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는 물로 수온이 2℃ 이하를 유지하는 고유의 물을 말한다. 햇빛에 영향을 받는 표층수는 강수나 풍랑, 증발 등 다양한 외부 영향을 받는 데 비해 심층수는 해양식물이 자라는 데 필수적인 영양염류 뿐 아니라 유기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20세기의 프랑스 생물학자 르네 켈통은 아기가 자라는 어머니 배 속의 양수 성분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해양 심층수를 마시면 미네랄을 비롯해 각종 영양소가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리코스 제품의 원료가 되는 해양 심층수를 강원도 고성 동해에서 추출하고 있다. 식수를 비롯해 의약이나 수산, 농업, 환경,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활

용할 수 있는 복합 에너지자원으로 최근 수년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점차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에는 해양 심층수에서 추출한 미네랄 성분이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받기도 했다. 그렇다면 해양 심층수가 피부에는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선 각종 미네랄과 영양염류가 압도적으로 풍부해 강력한 보습 효과를 선사한다. 연간 수온이 2℃ 이하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수압이 높은 안정한 상태의 심해에는 각종 미네랄을 비롯해 1백여 종의 필수 미량 원소가 함유돼 있다(해양 심층수의 미네랄 함

유량은 2g/L, 일반 먹는 물의 미네랄 함유량은 8~32mg/L다). 태양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표층수에 존재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런 미네랄과 미량원소를 소비하는 반면 심층수는 무기 영양물질이 고르게 존재하고 대기오염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청정한 것도 장점. 심층수의 이런 성분은 피부 세포의 전해질과 산도(pH) 균형을 잡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즉, 밸런스를 맞춰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할 뿐 아니라 피부의 보습력을 높이는 효과도 탁월하다.

강원도 동해, 햇빛이 닿지 않는 심해 605m에서 끌어올린 저온의 해양 심층수로 만든 리리코스 하이드로 라인인 세안 후 처음 피부에 바르는 스킨과 에센스의 보습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독자적인 기술로 완성한 해양 심층수와 세 가지 식물의 복합체인 하이드로패스™가 핵심 성분으로 보습 성분이 피부 곳곳에 흡수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풍부한 수분을 전달한다. 쫀득한 콧물 같은 제형의 에센스 인 에멀전은 세럼과 크림의 중간 단계에 바르면 좋은 멀티스킨 부스터. 앰플이나 세럼을 챙겨 바르기 귀찮은 날에는 스킨을 바른 뒤 에멀전과 크림으로 마무리해도 쫀득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뜨거운 태양 별에 피부가 불거들거 트러블을 일으킬 때에도 유용한 멀티 제품. 화장솜에 덜어 피부가 얇은 눈 밑, 피지 분비량이 많은 T존 부위에 팩을 붙이듯 올려놓으면 피부 진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깨끗하고 맑은, 차원이 다른 해양 심층수의 성분을 그대로 담은 리리코스의 마린 하이드로 라인으로 피부 보습력을 한 단계 강화해보자. **1**

해양 심층수란?

해양 심층수를 이해하는 4개의 키워드.

저온 해양 심층수는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등 전 세계를 순환하는 해수가 북대서양 그린란드나 남극 웨들해의 차가운 빙하 해역을 만나면서 생성된다. 고온의 염도 높은 표층수와 밀도 차이가 뚜렷해 다른 해역과 섞이지 못하고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경계를 이룬 채 거대한 바다 층을 형성하며, 늘 2℃ 이하의 차가운 온도를 유지한다. 태양광이 미치지 않아 계절에 상관없이 미네랄과 영양염류 등 다양한 성분이 풍부하다.

청정 해양 심층수는 햇빛이 닿지 않아 해양식물의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균도 번식하지 않아 표층수보다 깨끗하게 유지된다. 또 육지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차단돼 있어 식수뿐 아니라 다양한 식품의 성분과 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영양 해양식물의 광합성이 차단된 해양 심층수는 높은 수압으로 해수의 성분이 분해되어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질산염이나 인산염, 규산염 등 다양한 무기 영양염류를 함유하고 있다.

미네랄 해양 심층수의 청정 미네랄은 인체를 구성하는 체액과 가장 흡사하다. 특히 표층수에 비해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 필수 미네랄 구성 성분을 3백 배 이상 함유하고 있어 피부의 부족한 영양을 채워준다.



- 1.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에센스 인 에멀전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보습 에센스 성분을 함유해 하루 종일 생기는 피부로 유지해주는 에센스 에멀전. 100ml, 4만5천원.
- 2.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스킨 리파이너
보습력이 탁월해 하루 종일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로 지켜주는 보습 스킨. 150ml, 4만원.

여성의 신체 가운데 독소 흡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생식기와 배변 기관이 모여 있는 Y존이다. 팔꿈치에 비교하면 무려 42배나 높은 정도! 그만큼 예민하고 연약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위이자 림프샘과 대퇴 혈관이 위치해 체내 독소 배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위다. 여름엔 체온이 오르는 것 이상으로 Y존이 뜨거워지는데, 체온이 오르면 질염과 피부염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고온 다습한 환경 탓에 침투한 세균이 더 빨리, 많이 증식할 위험도 있다.

질과 외음부를 포함한 여성 생식기의 이상적인 산도는 pH 4.5-5.5 수준. 이 밸런스가 깨지면 가렵고 분비물이 늘거나 냄새가 나기 쉽다. 생식기는 세균 자정 능력이 있는데, 이를 넘어선 강도의 화학 성분이나 환경호르몬이 닿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가장 버티기 힘든 시기는 생리 기간. 3-7일간 생리대를 피부 가까이 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짓무르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생리혈을 흡수하면 부풀게 고안된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한 생리대는 질 입구를 막아 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드므로 쓰지 않는 편이 좋다.

소중한 여성의 소중한 그곳을 위해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져 기분마저 찝찝한 요즘, Y존 상황을

좀 더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약간의 자극에도 쉽게 세균이 증식해

가려움증이나 질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중한 Y존을 사수해

여름을 보충보충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노하우를 정리했다.

editor LEE SUNG JIN

PHOTOGRAPHY: WWW.GETTYIMAGESBANK.COM

질 건강을 위해 유념해야 할 것

● 속옷은 따로 세탁한다

속옷은 나일론 등 합성섬유보다 면으로 만든 것이 안전하다. 합성섬유 속옷은 열과 습기를 조절하지 못해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속옷과 겹옷을 함께 빨거나 일반 세탁 세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묻은 먼지나 세제 찌꺼기가 남아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속옷은 따로 전용 세제로 세탁해야 한다.

● 올바른 방법으로 씻는다

생식기 주변에 노폐물이나 분비물이 쌓이면 세균이 더 빨리 증식할 수 있고, 너무 자주 씻으면 필요한 유익균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하루 한두 번, 앞에서 뒤로 씻는 것이 좋다. 외음부와 질 입구 등 생식기의 바깥 부분 위주로 마사지하듯 씻고, 세정제를 사용할 경우 흐르는 물에 꼼꼼히 헹궈야 한다.

● 여성 청결제를 쓴다

외음부는 외부 물질이 침투하지 않게 막아주는 진피층이 없고 각질층도 아주 얇아 쉽게 민감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용 세정제로 씻어야 한다. 샤워하며 바디 클렌저로 Y존을 씻는 경우가 많은데, 바디 클렌저는 대부분 pH 10 정도로 알칼리성이어서 질 내 산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고 계면활성제를 비롯한 화학 성분을 함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여성 청결제는 보통 주 1~2회 쓰는 것이 바람직하며, 냉이나 약취 때문에 괴롭다면 나아질 때까지 좀 더 자주 써도 괜찮다. 질 세정제와 달리 외음부를 씻는 용도로 고안된 제품이기에 때문에 세정제가 질 안쪽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 성분을 확인한다

앞서 기술했듯 Y존은 독소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근처에 닿는 제품의 성분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정제는 계면활성제나 방부제인 페녹시에탄올, 인공 향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골라야 한다. 냄새 제거를 위한 퍼퓸 제품, 해당 부위를 환하게 만드는 화이트닝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 역시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 질염이 생기면 바로 약을 먹는다

여성의 85%가 살면서 한 번은 걸린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흔한 질병인 질염.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색이 탁하고 질 입구가 따가운 경우에는 질염을 의심할 수 있다. 세균성 질염과 곰팡이성 질염이 특히 흔한데, 세균성 질염에 걸리면 분비물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고 질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진다. 칸디다성 질염이라고도 불리는 곰팡이성 질염은 으깬 두부나 비지 형태의 분비물이 나오고 심하게 가려운 것이 특징이다.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해당 부위를 씻은 뒤 깨끗한 속옷으로 갈아입을 것. 증상이 경미할 경우에는 약국에서 질정을 구입해 치료를 해보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질염을 오래 방치하면 균이 자궁으로 유입되어 골반염 등으로 발전하기도 하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 유산균을 먹는다

질에는 악산성을 유지하는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 있어야 하는데, 이 균이 줄어들면 혐기성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 여름에 기승을 부리는 세균성 질염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질 내 유익균 부족. 따라서 유산균을 꾸준히 복용하면 질 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

TIP

프리메라 후리 앤 후리 Y존의 산성 보호막을 깨뜨리지 않고 밸런스를 조절해 건강을 유지해준다. 여성에게 좋은 썩새색 추출물과 보습 효과가 뛰어난 연꽃 추출물을 함유했다. 200ml, 2만7천원.



프리메라 후리 앤 후리 소프트 폼 자연 유래 계면활성제로 만드는 부드러운 거품으로 외음부를 부드럽게 씻을 수 있다. 칼렌둘라 추출물을 함유해 연약한 부위를 진정시켜준다. 150ml, 2만7천원.



슬기로운 향기 생활

꾸밈없는 여름, 취향에 맞는 향으로 불쾌지수를 낮추는 건 어떨까.

4가지 타입별 여름 향수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향기 테라피를 즐겨보자.

editor AHN SAE ROM

ROSE WOOD

바람이 옷깃을 스칠 때마다 풍기는 부드럽고 진한 우디 향을 원한다면

구말 파리스 수와 우자메. 100ml, 25만5천원.

구말 파리의 수와 우자메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장미 향이 느껴지는 로맨틱한 향이 특징이다. 달콤한 로즈와 묵직한 우디 향이 어우러져 성숙하고 우아한 매력을 자아낸다. 아낙 구말이 상상한 신비롭고 감각적인 장미의 이야기를 터키 로즈와 앙브레트 씨, 1백60가지 에센스 블렌드로 완성했다. 아낙 구말이 생전 자신의 향수 인생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고 꼽은 향수이기도 하다. 뽀뽀하게 다린 화이트 셔츠 옷깃에 아주 조금씩 뿌려보자. 풍부한 장미 향과 중심을 잡아주는 매력적인 우디 머스크 향이 반전 매력을 선사할 테니까.



FRESH ROSE

땀 흘린 뒤에도 은은하게 풍기는 향을 원한다면

프라도어 바디오드 퍼퓸 10. 100ml + 미니어처 15ml, 6만7천원.

뜨거운 햇살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여름.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땀 때문에 찝찝한 기분은 불쾌지수를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럴 때 향수만큼 좋은 것보다 퍼퓸. 프라도어의 바디오드 퍼퓸은 불쾌한 체취는 없애고 좋은 향을 남긴다. 들뜬 핀 야생 장미의 상쾌한 향을 담은 10은 운동한 뒤 가볍게 뿌리면 체취는 없애고 은은한 로즈 향을 풍겨 여름철 필수품이다.



PHOTOGRAPHY: WWW.GETTYIMAGEKOREA.COM, CHOI SEUNG HYUK(제훈)

SPICY LEATHER

어디론가 떠나고 싶게 만드는 상쾌한 여름 향을 찾고 있다면

구말 파리 뒤엘 오드 투왈렛. 100ml, 21만4천원.

코로나19로 공들여 세운 여름휴가 계획을 취소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눈을 감고 향을 맡으며 마치 탐험하듯 상상 속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남성적이면서도 상쾌한 첫 향이 푸른 바다와 싱그러움 숲을 연상시키는 구말 파리의 뒤엘 오드 투왈렛. 코를 자극하는 상쾌한 가죽 냄새가 느껴지는 첫 향이 부드러운 바닐라 향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중성적인 매력의 향수로 다른 계절의 향과 레이어링 하면 다채로운 잔향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플로럴 계열 향수와 만나면 우아하고 고혹적인 잔향을 풍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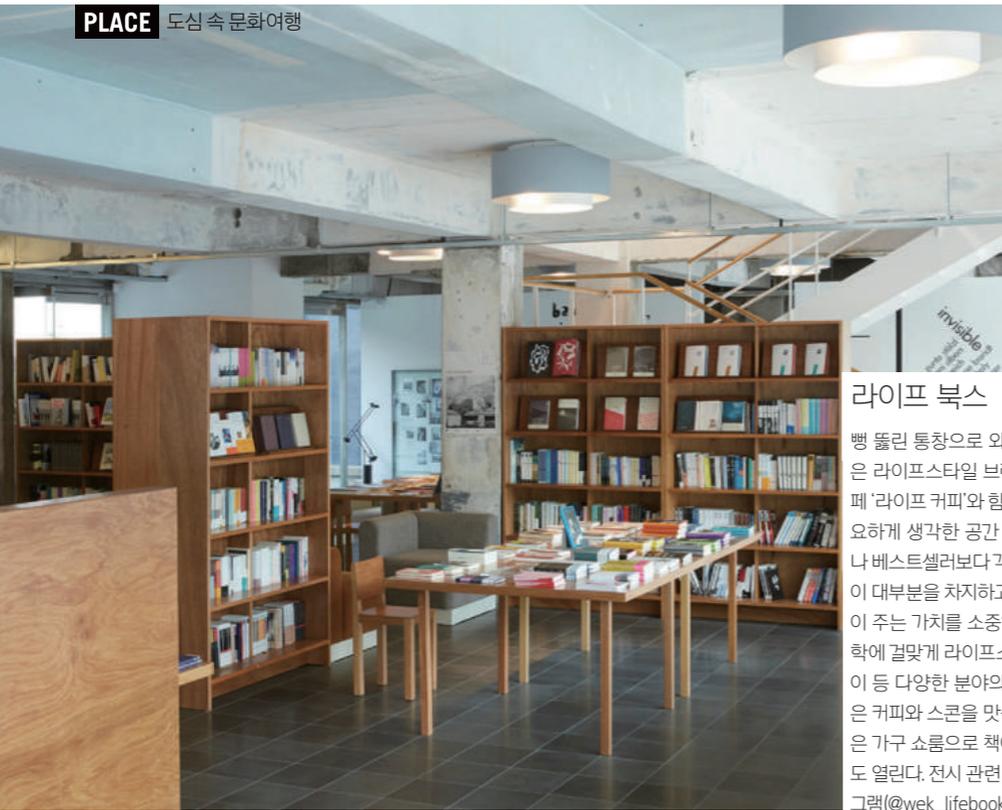
GREEN FLORAL

긴장을 풀어주는 자연의 싱그러움 향을 느끼고 싶다면

헤라 더시그니처 오드 퍼퓸. 30ml, 8만5천원.

이 향수를 뿌리고 눈을 감으면 꽃이 가득한 들뜬 연상된다. 첫 느낌은 어딘가 익숙한 향. 달콤한 꽃향기와 무성한 수풀에서 나는 신선한 풀내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이트 머스크 베이스의 향이 부드럽게 퍼져 잔향이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다. 헤라의 더시그니처 오드 퍼퓸은 빛나는 아름다움을 특색 삼페인처럼 상큼한 첫 향과 은은하게 맴도는 플로럴 향으로 표현한 향수. 베르가모트와 블랙 커런트, 와일드 애플의 특색 향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은은한 플로럴, 화이트 머스크 향을 느낄 수 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41
문의 02-1899-6190



라이프 북스

땀 뿜린 통창으로 외부 전경이 시원하게 보이는 이곳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비아인키노가 가구 소품, 카페 '라이프 커피'와 함께 운영하는 서점. 책과 여행을 중요하게 생각한 공간 배치가 매력적인 곳으로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보다 각 분야 전문가가 큐레이팅 한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좋은 책과 공간 사이, 시간이 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라이프 북스의 철학에 걸맞게 라이프스타일, 문화, 인문과학, 예술, 어린이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구비하고 있다. 지하 1층은 커피와 스콘을 맛볼 수 있는 라이프 커피로, 2~3층은 가구 소품으로 책이나 가구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도 열린다. 전시 관련 소식은 라이프 북스 공식 인스타그램(@wek_lifebook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떠오르는 독립 서점

독립 서점은 이제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다. 감성과 취향, 그리고 좋은 콘텐츠를 공유하는 신개념

공간으로 변화하는 중이다.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 오롯이 혼자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독립 서점 5곳.

editor AHN SAE ROM

소전서림

하얀 벽들로 둘러싸인 책의 숲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스위스 건축가 다비데 마쿨로가 2016년 설계해 벽돌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파사드 디자인이 매력적인 소전서림은 비평가, 시인, 서평가 등 전문가들이 선별한 인문서적, 예술서적 등 4만여 권의 도서로 가득하다. 프랜시스 베이컨, 팀 아이틀 같은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이 둘러싸인 이곳은 열람 공간 이외에 강연과 공연 공간도 마련돼 있다. 도서관이자 미술관, 공연관 등을 겸한 문화공간인 소전서림은 멤버십제로 운영한다. 빗소리를 들으며 하루 종일 책에 빠져 보내고 싶은 날, 방해받지 않고 몰입할 시간을 원할 때 완벽한 공간이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138길 23
문의 02-542-0840



어반스페이스오디세이(USO)

'서울이라는 도시를 기반으로 각종 콘텐츠를 여행한다'라는 콘셉트로 탄생한 복합 문화 공간. 잡지를 기반으로 한 매력적인 콘텐츠를 오프라인으로 옮겨와 매달 화제를 모으는 책의 저자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는 심야 책방, 독서 커뮤니티 형식의 심야 살롱을 운영하기도 하고, 1층에 위치한 어반북스의 콘텐츠 큐레이션 플랫폼 도시 서점 2호점에서는 서울과 여러 도시에 관한 각종 도서와 굿즈를 판매한다. 2층에서는 개성이 뚜렷한 전시들도 관람할 수 있다.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6길 33
문의 070-7702-8004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3길 60
문의 070-4233-3905

서점 리스본

여행지에서 예정에 없이 불쑥 들어간 곳이 너무나 마음에 든 적이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서점 리스본이 그랬다. 책을 쓰고 라디오 작가도 겸하고 있는 정현주 작가가 운영하는 독립 서점으로 2017년에 연남동 경의선숲길에 위치한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시작해 벌써 3년째 접어든다. 서점 이름은 소설 <리스본 야간 열차>에서 따왔다고 한다. 북 토크를 비롯해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서점 리스본으로 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안함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해주는 라디오처럼 소통하는 큐레이션이 담긴 책과 마당에 웅기충기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색에 빠지는 시간을 누릴 수 있다. 한 가지 더, 서점 리스본에서는 태어난 날이 같은 작가나 인물에 관한 생일 책도 볼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요즘, 나에게 주는 선물로도 좋지 아니한가!

인덱스

자양동 컨테이너 문화 공간인 커먼그라운드에서 위치한 서점 인덱스는 맵북스와 그래픽, 글자 연구소 회원들이 모여 만든 공간으로 매력적인 디자인 서적이 많은 것이 특징. 서적이 있는 높낮이가 다른 독특한 공간은 물론, 카페와 전시 공간도 마련돼 있다. 인덱스의 독특한 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창작의 기점이 되는 곳이라는 것. 그래픽디자인계에 몸담은 사람들의 공간답게 포스터를 전시하는 이벤트나 토크쇼, 강좌 등을 진행하는 인덱스 뉴스클 워크숍도 운영한다.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00 커먼그라운드 3층
문의 02-2122-1259



서점과 서점제

책과 영화로 만나는 여름

진짜를 만나는 계절이다, 여름.

writer JUNG HYUN JOO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야생의 위로〉라는 책을 받았다. 영국의 박물학자 에마 미첼의 책이다. 에마는 25년이나 우울증을 앓았다. 치유에 도움이 된 것은 자연이었다. 숲에서 5분 거리로 이사한 뒤 에마는 매일 자연으로 걸어 들어가 나무의 향기를 맡고 바람을 느끼고 꽃을 그렸다. 에마는 디자이너이며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하다. 땅에 떨어진 솔방울과 나뭇가지를 모아 작품을 만든 뒤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10만 명이 넘는 팔로어들이 그녀가 화면 안에 재구성해낸 자연을 사랑했다. 에마는 천천히 괜찮아졌다. 그러나 치유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날씨였다. 정확히 말하면 계절. 〈야생의 위로〉는 가을에서 출발해 겨울과 봄을 거쳐 여름에 끝이 난다. 우울증 환자가 대개 그러하듯 에마 역시 계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가을부터 에마의 기분은 가라앉기 시작한다. 겨울은 끔찍했으나 뜻밖에도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계절은 봄이다. 세상에는 꽃이 피어 찬란한데 에마는 홀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여름에 도달했을 때 에마는 제법 괜찮아진다. 마음에 어둠을 품은 사람들이 대부분 거치는 과정이다. 여름이 되면 내면의 회색 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이 보인다.

“왜 가을부터 시작하는 거죠. 읽다 보니 덩달아 마음이 힘들었어요.”
“식물 관련 책을 제대로 쓰려면 가을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열매 맺고 씨앗이 생기는 계절이잖아요. 존재가 시작되는 시기인 거예요. 가을이. 식물에게는.”

편집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가을에 시작된다. 식물은. 마음에 감기가 든 박물학자는 그러나 여름에 관찰아졌다.

〈마르셀의 여름〉이라는 프랑스 영화를 사랑한다. 여름휴가를 떠난 프랑스인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다. 원제는 ‘La Gloire De Mon Pere’, 영어 제목은 ‘My Father’s Glory’.

마르셀의 아버지 조제프는 마르세유의 초등학교 교사다. 학교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자란 소년 마르셀은 여섯 살이 되자 입학했다. 소년에게 아버지는 학교에서 제일가는 선생님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완벽했다. 이모가 결혼을 할 때까지는. 늦은 나이까지 홀로 지내던 이모가 돈 많은 고급 공무원과 결혼을 했다. 이모부가 빛나는 만큼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초라

해질까 봐 초등학교 1학년 마르셀은 긴장했다. 여전히 아버지가 가장 빛나는 사람이길 바랐기 때문이다. 길에서 도마뱀을 발견했을 때보다, 호수 위에 동동 떠가는 구름을 볼 때보다 소년이 더 행복했던 것은 아버지가 공치기 놀이에서 1등을 했을 때였다. 완벽한 여름휴가의 날들이었다. 사냥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모부가 최신식 사냥총을 꺼냈다. 아버지의 총은 낡은 화승총이었다. 이모부는 잘난 척을 해두고 소년은 애가 타기 시작했다. 빛나는 쪽은 아버지여야 하는데, 초라해지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된 소년은 어른들 몰래 사냥터에 숨어든다. 아버지는 총 쓰는 데 재주가 없었다. 새를 맞추기는 커녕 장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소년은 사람들 몰래 아버지를 돕기로 했다. 새들을 아버지 앞으로 몰아주려 했지만 되레 길을 잃고 만다. 헤매던 끝에 총소리를 들었다. 소년 앞으로 커다란 새 두 마리가 떨어졌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새를 잡은 줄도 모르고 이모부에게 변명을 하고 있었다. 마르셀은 피가 떨어지는 새 두 마리를 들고 두 사람 앞으로 달려간다. “아빠가 잡았어요! 아빠가 이렇게 큰 새를 두 마리나 잡았어요.”

그 여름, 소년은 모든 면에서 최고인 줄 알았던 아버지가 그저 보통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에 실망했을까. 〈마르셀의 여름〉이 매력적인 이유는 휴가가 끝날 무렵 소년이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됐다는 데 있다. 아버지는 부족한 것이 많은 보통 사람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할 일이 있었다. 성장은 부족을 부정하는 데서 오지 않고 끌어안는 데서 온다.

안드레 애치먼의 소설 〈그해, 여름 손님〉은 주인공 엘리오가 열일곱 살 때 여름을 떠올리며 시작한다. 리비에라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20대 청년 올리버가 방문했다. 처음 보는 지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영혼 올리버에게 엘리오는 빠져들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연주할게요.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내 손가락이 벗겨질 때까지. 난 당신을 위해 뭔가 해주는 게 좋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테니까 말만 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았어요. 친근하게 다가가는 나에게 또다시 얼음처럼 차갑게 반응할 때조차. 우리 사이에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 눈보라 속에서 찬란한 여름을 되찾아 오는 쉬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타오르던 여름이 끝나자 엘리오는 열정을 쏟을 곳을 잃었고 겨울에는 상실이 아파 울었다. 그렇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나 그해 여름을 생각하면 또렷이 떠올랐다. 올리버의 목소리, 그의 말버릇까지도. 엘리오는 수많은 여름 중 특별한 여름 하나를 가졌고 사랑을 배웠다. 사랑 안에 숨은 폭풍과 사랑 안에 숨은 갈날까지도 모두 만났다. 비록 겨울이 아팠더라도 여름의 찬란함은 빛이 바래지 않았다.

거북스럽던 마음의 검은 구름이 걷히고 제법 살만해지는 계절이다. 여름은. 거추장스러운 옷의 조각들을 벗고 속살을 드러내는 계절, 사랑하는 사람의 약점까지도 선명하게 보이는 시절이다. 여름은. 끌어안으면 사랑은 더욱 성숙한다. 여름이어서 더더욱. 뜨겁고 분명하다. 거추장스러운 옷의 조각들을 벗어내듯이 감정이 선명해지는 계절이다. 여름은.

영화 〈500일의 썸머〉는 ‘썸머, 이 나쁜’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주인공 톰은 첫눈에 썸머에게 반했고 운명이라고 믿었지만 둘은 엇갈렸다. 톰에게 썸머는 모호하기만 했다. 마음도 관계의 이름도 알 수 없었다. 놓쳤고 아팠다. 많은 사람이 썸머를 보내고 나서야 톰이 오템을 만난 사실에 주목한다. 혼란스러운 관계를 보내고 나서야 성숙한 만남이 온다고 하지만, 마지막 만나던 날 썸머가 톰에게 했던 이야기도 기억해두면 어떨까. 썸머는 톰과 멀어진 뒤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한 남자가 다가와서 물었다. “그 책 재밌어요?” 썸머는 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남자는 마주 앉아 들었다. 밀고 당기기 같은 것은 없었고,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둘은 자신의 우주에 상대를 초대했다. 둘은 곧 결혼했다. 제대로 뚜껑을 열지 않아서, 표지를 펼치지 않아서, 몸을 사려서 썸머를 잡지 못했던 톰과는 달랐다. 좋은 것은 대부분 분명하다.

다 열어 보이는 계절이다, 다 열고 진짜를 보이고 진짜를 만나는 계절이다, 여름은. 더 관찰아지고, 더 사랑하고, 더 성장하는 계절이길. 여름이. **LD**

〈향장〉은 매달 〈불륨을 놓여요〉, 〈별이 빛나는 밤에〉 등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의 원고를 담당했던 작가이자 독립 서점 ‘리스본’을 운영하는 정현주의 에세이를 연재합니다.

ITEM 이달의 추천 제품



프리메라 페이스얼
마일드 필링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해
매끈한 피부로 바꿔주는
효과적인 페이스얼 필링
제품. 150ml, 3만원.

2
프라도어 바디오드
퍼퓸 10 들판에 핀
야생 장미의 향을
담은 바디 향수.
100ml + 미니어처 15ml,
6만7천원.



이달의
필수템 미리보기

EDITOR'S PICK!

에디터가 간간하게 고른 브랜드별 뷰티 신제품.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헤라 아이글로우미
블랙 LED 쿠션
LED 조명이 들어오는
혁신적이고 힌한
패키지로 변신한 헤라의
아이글로우미 컬렉션
블랙 쿠션. 15g, 6만5천원.



5
헤라 아이글로우미
컬러 글로우 스트로크 터치 앤 아이
눈가와 뺨에 쓱쓱 그리고 톡톡 두드려
흡수시키면 끝. 자유롭고 간편하게 섹터
메이크업을 완성시켜주는 독특한 아이템.
#01 캔디드 / #02 즐리 / #03 알리 / #04 스티커,
각각 3.5g, 3만8천원.

6
프리메라 아로마 바디
스크럽 워시 프레쉬-업
자연 유래 각질
제거 성분을 함유해
사워하면서 묵은 각질을
없앨 수 있다. 230ml,
2만5천원.



3
설화수 상백크림 SPF50+/PA++++.
No.2 밀키톤업 자외선은 물론
초미세먼지까지 막아주고, 톤업 효과를
겸비해 데일리 케어용으로 알맞다.
30ml, 6만원. 50ml, 8만5천원.



4
설화수 명일본초염플
인삼, 감초, 당귀, 천궁, 대조(대추)로
구성된 명인지진™을 가득 담아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8주 프로그램 앰플.
8ml×4, 20만원.



매일 하는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현대인의 문제적인 식습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미엄 녹차 정제



고열량, 고탄수화물, 고당류 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콜레스테롤 관리
메타그린 골드의 녹차추출물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으로부터 항산화, 뼈 건강 관리
비타민C, 녹차추출물이 함유되어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비타민D가 함유되어 뼈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타그린 골드만의 프리미엄 정제 기술 적용
아모레퍼시픽만의 녹차 정제 기술을 높여, 정제를 만들고 코팅하는데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37가지(이산화티타늄, 스테아란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를 함유하지 않았으며,
장용성 코팅 기술로 더욱 속 편하고 부드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 농산물 유래 건강기능식품 중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녹색기술제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실록농장 직접 재배 관리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자음엑티베이터™로
타고난 피부 능력을 깨우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



Sulwhasoo